

LG전자 - KAIST 나노기술 공동연구

LG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나노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KAIST 나노종합팹센터에 LK(LG-KAIST) 나노연구센터를 설치해 나노 학술과 연구, 연구인력을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G전자는 10월21일 LG전자 전자기술원장 이귀로 부사장, KAIST 나노종합팹센터 이희철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종합팹센터에서 LK 나노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LG전자와 KAIST 나노종합팹센터는 학술, 연구 및 연구시설 교류협정서를 체결해 나노종합팹센터의 연구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기술을 공동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귀로 부사장은 “LG전자는 LK 나노연구센터를 통한 학·연·산·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R&D)과 산업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ST 나노종합팹센터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세워진 국가연구센터로 나노소자, 소재, 공정, 물리원천, 바이오 분야의 핵심 연구장비와 클린룸 시설을 갖춘 나노기술 종합연구 지원시설이다.

<화학저널 2005/10/24>